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7
2025.12.22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CBAM 적용 대상 확대, 수입 550억 유로 추가
- EU·영국, 2026년 정상회의 전 ETS 연계 합의 목표
- 브라질, 싱가포르·스위스와 Article 6 협력 본격화
- COP30 이후 PACM 전환 본격화, 8개 프로젝트 정부 승인 확보
- 영국·벨기에, 국경 간 CO₂ 운송 협정 추진, CCS 협력 본격화
- Verra, VCS Version 5로 자발적 탄소시장 기준 상향
- Verra, CORSIA 크레딧용 보험사 3곳 공식 지정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CBAM 적용 대상 확대, 수입 550억 유로 추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 제도 (CBAM)의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2028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의 하위 제품 180개로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제안

이에 따라 CBAM 적용 수입 규모는 기존 1,000억 유로 (약 174조 원)에서 550억 유로 (약 96조 원)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와 맞물려 CBAM을 통한 재정 수입도 2035년까지 증가할 전망

전력의 경우 송전망 안정 및 비상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EU와 비EU 국가 간 비상 전력 이전에 대해 CBAM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

금번 개편안에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크레딧을 인정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며 정책적 논쟁이 확대



EU·영국, 2026년 정상회의 전 ETS 연계 합의 목표

EU와 영국이 2026년 중반 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연계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

이미 전력 시장 참여와 교육 프로그램 협상을 마친 양측은 내년 봄까지 ETS 연계 등 추가 과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

이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EU ETS 개편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EU CBAM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도적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목적

특히 양국의 ETS 연계는 현재 톤당 약 18유로 (약 3.1만 원)에 달하는 양국 배출권 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브라질, 싱가포르·스위스와 Article 6 협력 본격화

브라질이 싱가포르와 스위스와의 MoU 체결을 통해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본격화

금번 협력은 향후 5년간 지속되며, Article 6 에 따른 접근 방식 이행을 위한 기술 교류 및 공동 작업을 포함. 브라질 환경 기후변화부 (MMA) 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NDC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 밝힘.

금번 파트너십은 향후 ITMO 승인 및 이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 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며, 국제 이전은 2024년 제정된 브라질 ETS 법률 (SBCE) 하에서 관리될 예정

아직 ITMO 발행 방식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일정은 개시되지 않았으나,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제도적 기반 강화가 진행 중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이미 다수의 6.2조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로서, 브라질의 Article 6 인프라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COP30 이후 PACM 전환 본격화, 8개 프로젝트 정부 승인 확보

COP30에서 유엔 청정개발체제 (CDM) 전환 승인 기한이 2026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존 CDM 프로젝트의 파리협정 크레디팅 메커니즘 (PACM)으로의 체제 전환이 실제 승인 단계에 진입

기존 CDM 하에 등록되었던 8개의 프로젝트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PACM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베냉, 파나마 등 호스트 국가의 승인을 확보했으며, UNFCCC 차원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

이와 함께 여러 국가들이 Article 6.4 기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PCN (Prior Consideration Notifications)을 제출, PACM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는 추세

UNEP (유엔환경계획)는 해당 신규 활동들이 연간 약 3,700만 톤의 감축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 추정함.

현재 파리협정 당사국의 60%가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지정국가기관)를 설립했으며, Article 6.2 하 양자 이행 협정도 지속적으로 체결되는 양상. 이는 국제 탄소시장이 제도적 준비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영국·벨기에, 국경 간 CO₂ 운송 협정 추진, CCS 협력 본격화

영국과 벨기에가 영구적 지질학적 저장을 목적으로, 런던의정서 하에서 국경 간 CO₂ 운송 및 영구 저장을 허용하는 양자 협정을 2026년 상반기 체결할 계획이라 밝힘.

양국은 저탄소 수소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협력 가능성,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및 교류 방안도 모색할 계획

영국은 북해에 대규모 CO₂ 저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CCS 예산과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유럽 내 CO₂ 저장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

다만 EU 회원국 간 런던의정서 비준 여부가 달라 EU 전역 단일 시장 형성에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협정 중심의 접근이 유럽 CCS 시장 확대의 현실적인 경로로 부상



Verra, VCS Version 5로 자발적 탄소시장 기준 상향

Verra가 VCS 크레딧 발행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 'Version 5'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논란에 대응

Version 5는 과거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과잉 크레딧, 지역사회 침해, 비영구성 리스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 원주민 및 지역사회 보호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의 절차 및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고, 산림 등 자연기반 프로젝트의 비영구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존 버퍼 풀 외에 보험·펀드 기반 대안을 시범적으로 허용

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기준선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방법론을 최신 기술에 맞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크레딧 품질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분명히 함.

이번 개정은 2027년 초부터 크레딧 등록을 시작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며, 최근 베라 프로젝트 조사 및 발행 중단 사태 이후, VCM 전반의 무결성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



Verra, CORSIA 크레딧용 보험사 3곳 공식 지정

Verra가 UN 국제 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 (CORSIA) 적격 크레딧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CFC Underwriting, Oka, Artio Carbon 총 3개 보험사를 초기 승인 보험사로 지정

금번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요구하는 2021년 이후 발행 탄소 배출권 (VCU)의 이중계상 방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서, 탄소배출권 유치국이 상응 조정을 완료하여 UNFCCC에 보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중 청구 리스크를 보험 상품을 통해 완화하려는 목적임.

보험 적용은 CORSIA 라벨 부여 시점부터 UNFCCC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반영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 보장 범위를 해당 크레딧 총 시장 가치의 최소 30%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